

4·3을 소재로 한 시들의 유형과 특징

문 혜 원*

요 약

4·3을 소재로 한 문학 작품들은, '4·3'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외지인들에게 알리고 그것을 새롭게 조망하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했다. 현기영의 「순이삼촌」(1978)을 필두로 한 일련의 작품들과 현길언의 「우리들의 조부님」(1982)으로 대표되는 소설들은, 폭동으로 알려져 있던 '4·3'을 새롭게 인식하는 동기가 되었다. 이들의 작품을 통해 4·3은 제주도민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가장 큰 상흔인 동시에 현대사의 중요한 한 사건으로 떠오르게 된다. 이에 비한다면, 4·3을 소재로 한 시들이 쓰여지는 것은 다소 늦은 편이다. 4·3을 소재로 한 시들은 그 이전에도 있었지만, 세간의 주목을 끌게 된 것은 이산하의 「한라산」(1986)부터라고 할 수 있다. 「한라산」에 얽힌 필화 사건은 4·3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일조를 했던 것이다. 이를 계기로 해서 4·3을 소재로 한 시집들이 본격적으로 출간되는 것은 1990년대에 이르러서이다. 본고는 4·3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시에서 어떤 식으로 표출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4·3을 소재로 한 시들은, 당시 상황을 고발하거나 4·3으로 인한 피해를 그린 시들과 피해자들의 원혼을 달래고 상처를 위무하는 시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를 건설하려는 의지를 담은 시들로 나누어진다. 그 중 첫번째 유형은 4·3 당시의 참혹했던 실상을 고발하고 폭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시들이다. 이 시들은 무고한 도민

* 가톨릭대학교 강사

들에게 가해진 죽음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가를 보여주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인간의 生死는 그때 그때 만들어진 편의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이 시들은 그러한 상황을 고발함으로써, 4·3의 폭력성을 고발하고 있다. 두번째 유형은 죽은 자들의 넋을 달래고 그들의 한을 대신 풀어주는 解冤의 시들이다. 이 시들은 현재의 관점에서 4·3이라는 과거의 사실을 바라보고 있으며, 원통하게 죽은 자들의 한을 풀고 명부에서나마 편안히 쉴 것을 기원하는 추모의 형식을 띤다. 이러한 解冤의 형식은 상처와 증오를 감싸안는 포용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세번째 유형은 앞의 두 유형의 시들이 대부분 과거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과는 달리, 후손들의 현재 삶의 모습과 앞으로의 삶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보다 발전적이다. 서로 반목한 채 지내온 사람들의 갈등을 극복하고, 화해를 통해 희망적인 앞날을 점쳐보는 것이다.

작품의 양이 많아지고 4·3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진 시인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분명히 고무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남아있다. 첫째, 내용상의 동어반복과 그에 따른 시의 획일화를 들 수 있다. 특히 4·3으로 인한 피해상을 그리고 있는 시들은 대부분 엇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수난상을 그리는 데 치중하다 보니 상황에 대한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이 뒷받침되지 않음으로써, 사건의 진실을 은폐할 위험성도 있다. 4·3의 현재적인 의미나 미래의 전망을 보여주는 시들이 좀더 많이 쓰여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4·3을 바라보는 시각의 평면성을 지적할 수 있다. 대부분의 시들은 피해를 입은 당사자인 제주도민의 입장에서 4·3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러한 시각의 고정성은 외지인에 대한 반감과 피해의식으로 귀결되기도 한다. 피해의식에서 벗어나 사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려는 노력 또한 요구된다. 셋째, 시의 양만이 아니라 질적인 수준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4·3을 소재로 하는 시들은 양과 질의 양면에서 아직은 미흡한 상태이다. 이 시들은 대부분 제주에서 출판되고 유통됨으로써 시집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발표된 시들 또한 모두 성공적인 것은 아니어서, 그

중에는 시라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작품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4·3을 소재로 한 시들이 단지 제주도민들만의 한풀이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이상과 같은 문제점들이 먼저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4·3은 특수한 한 지역에서 폭도들이 일으킨 난리가 아니라 민족의 역사와 맥을 같이하는 현대사의 한 장으로 기록될 수 있을 것이다.

1. 들어가는 말

4·3이 발발한지 반세기의 시간이 흘렀지만, 제주도민들에게 4·3은 아직까지 지워지지 않는 가장 큰 상처로 남아있다. 이러한 상처를 아물리기 위해서는 아픈 곳을 들어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곪은 상처는 칼로 썰고 고름을 빼내어야 아물 듯이, 4·3의 상처 역시 햇빛에 드러내어 말리고 털어야만 비로소 정리가 되는 것이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4·3에 관련된 자료집이나 논문들이 속출하고, 사후 50년을 계기로 하여 4·3을 새롭게 조명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4·3을 소재로 한 문학 작품들은, 외지인들이 4·3에 대해 새롭게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현기영의 「순이삼촌」(1978)을 필두로 한 일련의 작품들과 현길언의 「우리들의 조부님」(1982)으로 대표되는 소설들은, 육지와 떨어져 있는 섬인 제주도에서 발생한 폭동으로 알려져 있던 4·3을 새롭게 인식하는 동기를 제공했다. 이들의 작품을 통해 4·3은 제주도민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가장 큰 상흔이며 동시에 현대사의 아픈 기억으로 떠오르게 된다.

이에 비한다면, 4·3을 소재로 한 시들이 쓰여지는 것은 다소 늦은 편이다. 1980년대 초반에 김수열이 4·3을 시로 형상화한 시집들을 출간하긴 했지만, 4·3이 시적인 소재로 세간의 주목을 끌게 된 것은 아무래도 이산하의 「한라산」(1986)이 발표된 것을 계기로 한다. 「한

라 산」을 발표한 후 일어난 필화 사건은 4·3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일조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4·3을 소재로 한 시집들이 본격적으로 출간되는 것은 1990년대에 이르러서이다.¹⁾ 본고는 이들 시들을 연구의 대상으로 해서 문학 작품에 나타난 4·3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4·3을 소재로 한 시의 유형

1) 당시의 상황에 대한 고발과 상처의 현재적인 양상

4·3을 소재로 하는 시 중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은 당시의 참혹했던 실상을 고발하고 폭로하는 것이다. 이들 시의 특징은, 무고한 도민들을 피해자로 설정하고 그들에게 가해진 폭력과 죽음이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시인이 겪었던 직접, 간접의 체험들이 당시의 상황을 증언하는 데 밑바탕을 이루고 있다. 부모의 시체 밑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아이(김순남, 「구린굴을 가면」), 유채낭을 태우다 그 연기가 산으로 보내는 연락 신호라고 해서 억울하게 죽어간 영수네 할아버지(김용해, 「영수네 집」), 산폭도의 연락병으로 오인받다가 풀려난 순간, 오발탄에 맞아 죽은 귀머거리 할망(문충성, 「사월제 3」) 등의 이야기는, 당시의 억울한 죽음들을 잘 보여주는 예들이다. 혼란의 극한 상황에서 인간의 목숨은 그야말로 우연에 의해 生死가 결정된다.

젊은 청년들을 다 잡아다가 주정공장에
수감시켜 별별 고생 다 시킨 후
열여덟 살 이상 한 줄로 집합시키난

1) 이 부분은 김동윤의 「4·3문학, 어디까지 왔나」, 『제주작가』, 2000. 상반기를 참고로 한 것이다.

영식이 삼촌은 그 나이가 되어도 키가 한 발밖에
 안 되던 열일곱이엔 허연 살아났고
 앞동네 춘식이 아방은 열일곱이라도
 훌쩍하게 커부난 폭도질했넌 허영
 육지 감옥소로 실러부렸주

- 오승국, 「키 커서 죽었고 키 작아 살아났네」 전문

“그럼 말해라. 빨갱이라고 하지 않으면 이 아이를 죽이겠다”
 그 순간 나는 아무 것도 보이지 않았습디다.
 무섭고 떨리기만 하였습디다.
 아버지의 큰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습디다.
 아버지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불쌍하게 보였습디다.
 그러자 아버지는 소리쳤습디다.
 “오냐! 나를 죽여라. 나는 빨갱이다”
 그것은 너무나 처절한 소리였습디다.
 통곡 같기도 하고 울음 같기도 하였습디다.
 그리고 그 때 하늘을 가르는 듯한 총소리가 났습디다.

- 김용해, 「어느 아버지의 유언」 부분

오승국의 시에서 생사는 키가 크고 작다는 신체상의 조건으로 결정된다. 키가 작은 사람은 나이가 어리다고 속여서 살아나고, 키가 큰 사람은 제 나이보다 더 들어보여서 죽임을 당한다. 인간의 목숨이 그때 그때 편의적으로 주어지는 기준들에 의해 파리 목숨보다도 가볍게 취급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생명은 다른 인간에 의해 제멋대로 가늠되고 폐기된다. 이 시는 당시에 행해진 살상이 얼마나 무차별하고 자의적인 것이었는지를 희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김용해의 시에서 죽음은 보다 직접적인 체험으로 나타난다. 산에서 내려온 폭도들에게 쌀을 빼앗겼다는 이유로 빨갱이로 몰린 아버지는, 자신이 빨갱이임을 부인하다가 아들을 죽이겠다는 협박에 빨갱이임을 자인하고 죽는다. 죄를 짓고 죽는 것이 아니라, 무고한 사람을 죽

이기 위해서 없는 죄목을 만들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군인들은 가족들을 볼모로 하여 강제로 자백을 받고 그 자백에 따라 무차별하게 사람을 죽인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 아버지는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살아남은 아들은 평생을 울분과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간다.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비인륜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세월이 흘렀지만 4·3의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고 있다. 시기적으로 볼 때, 4·3 당시 성인이었던 이들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고, 예닐곱 살이었던 아이는 자라서 어느덧 중년의 나이로 접어들었다. 이들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4·3이라는 참혹한 기억이다. 사람은 죽고 세월은 흘렀지만, 그 때의 기억은 가슴 한 구석에 응어리로 남아 살아남은 자들을 괴롭힌다.(현안식, 「잊지는 말라」; 김규중, 「기침 소리」; 김수열, 「조천할망」 등)

남의 나라 전쟁에 끌려간 남편은
해방되던 해
사망통지서가 되어 돌아오고
하나뿐인 시동생은
무자년 음력 사월
웃드르 새각시 데려다
간출하게 혼례식 올린 지 보름 만에
오발한 총에 맞아 죽고
일본 강 돈 많이 벌었
편안하게 모시겠다며
닭똥 같은 눈물만 남기고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밀항선에 몸을 숨기고 떠나
시체마저도 건너지 못한 아들놈 위해
귀빠진 날로 대신하는 까마귀 모르는 제삿날
냉수 한 사발 떠올려 파제를 보고
진내 나는 이불 뒤집어쓰고 피울음 삭이면서

모든 것을 전생 곳은 팔자 소관으로 돌렸다

- 김수열, 「조천 할망」 부분

역사의 험난했던 길목마다 자신의 일가붙이를 희생물로 바친 조천 할망은, 살아남아 아들의 생일날 그 아들의 제사를 지낸다. 살아남은 날들이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시간을 견디며 죽은 자들의 넋을 기리는 것 뿐이다.

이런 가슴 아픔이 내면적인 상처라면, 죽어간 이들의 후손에게 가해지는 직접적인 상처는 '빨갱이 집안'이라는 누명이다. 빨갱이로 낙인 찍혀 어처구니 없이 죽은 자의 가족들은 하루 아침에 빨갱이가 되어 사회에서 철저히 격리된다. 어렵게 들어간 직장에서 취직이 취소되고(김용해, 「아버지의 편지」), 평생을 빨갱이 집안이라는 죄목에 눌러 주위 사람들로부터 소외되는 것이다. 억울한 죽음은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손대까지 따라 다니는 낙인인 것이다. 다음에 보이는 시는 이러한 '빨갱이 콤플렉스'가 역설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이다.

어머니는 칠십 나이에 관변단체 사무장을 맡아
인형에 불지르는 궤기대회 같은 데 불려다니며
그게 일본담배 먹지 말자는 구호더라도
두 팔 높이 치켜들어 하늘에 옛 먹이며
불순분자 몰아내는 일인 줄 아시나보다

- 김석교, 「치통」 부분

관변단체 사무장을 맡아 이 행사 저 행사에 앞장서는 어머니는, 4·3 때 서북청년단에 귀머거리 시어머니를 잃은 피해자이다. 그러면서도 늘그막에 관변 단체의 일에 앞장 서는 것은, 빨갱이라는 누명을 벗기 위한 어머니의 생존의 몸부림인 셈이다. 제사 때마다 그 때의 기억에 몸서리치면서도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머니는 경험으로 알고 있는 것이다. “어떻허느니 안 잊어불민 못 살커라라” 하는 어머니의 말은, 남아있는 가족들의 삶이 얼마나 신산하고 힘든 것인지를 보여준다.

4·3을 직접 경험한 세대인가 아닌가에 상관없이, 이 유형에 속하는 시들은 공통적으로 당시의 상황을 고발하고 증언하는 형식을 띠고 있다. 그런 면에서 이들 유형은 당시의 참혹한 상황을 전달한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한편 이 시들은 과거의 사실에 대한 깊이있는 인식이나 규명보다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슬픔을 형상화하는데 그치고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2) 解冤의 의식과 상처 아물리기

4·3을 소재로 한 시의 또 다른 유형은 죽은 자들의 넋을 달래고 그들의 한을 대신 풀어주는 解冤의 시들이다. 이 시들은 현재의 관점에서 4·3이라는 과거의 사실을 바라보고 있으며, 원통하게 죽은 자들의 한을 풀고 명부에서나마 편안히 쉴 것을 기원하는 추모의 형식을 띤다.(김석교, 「넋 달래려다 그대는 넋 놓고」; 문무병, 「넋은 넋반에 담고, 혼은 혼반에 저승 상마음로 도올리져 험네다」; 김수열, 「한아름 들꽃으로 살아」)

눈물 수건 드리오니
 눈물 수건으로 눈물을 닦으시고,
 땀든 의장 뼈를 싸 얼었던 몸 녹이고,
 얼은 마음 풀어서,
 이젤랑 정든 마을, 버려둔 처가속들 찾아가
 44년 울지 못한 설움을 풀고 가읍소서.
 저승 상마음로 가 나비로나 환생하소서.
 눈물이 죄 될리아 있습네까.
 눈물이 법에 걸려 두 번 죽을 리야 있습네까.
 원통하고 청원한 열흔 영신님네,

산산이 흩어지고, 찢기어진 영혼이여,
 인간의 삼혼 중에 한 닢만 없어져도
 검뉴울꽃 되는 법이오니,
 허공 중에 떠도는 닢을
 차사영신기 돌려 받아
 초혼 이혼 삼혼을 씌우려 합네다.

- 문무병, 「넋은 닢반에 담고, 혼은 혼반에 저승 상마음로 도올리져 험네다」 부분

그러나 이러한 추모가 제사의 형식으로 그쳐버린다면, 그것은 오히려 역사적인 사실을 은폐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진정한 解冤은 제사를 드리고 추모시를 짓는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또한 시간이 많이 흘렀다고 해서 기억 속에서 잊혀지는 것도 아닐 것이다. 사실에 대한 명확한 규명을 통한 伸冤이 아니라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실체를 파악하려는 노력이 수반되지 않는 한, 죽은 자들의 한은 풀리지 않는 것이다. 시간이 흘렀다는 것은 과거의 사실을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여지가 주어졌다는 것일 뿐, 그것 자체가 解冤의 방식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 / 이제랑 풀어 봅서 / 경 해영(그렇게 하여) 편안하게 눈곱읍서 / 제발 원한도 풀곡 / 눈물도 풀어 봅서 / 몇 년이파, 훌러훌러 50여년 아니파 // 그 때 아들들이 자란 할오방 됐수게 / 그 때 손지들이 자라난 아방, 어멍 됐수게 / 그 때 총을 겨누던 무자비한 놈들 / 다 죽고 병들어 죄값을 치렀수게 / 지가 지은 죄, 어디 갹니까” - 김용해, 「아버지 전 상서」)

解冤은 살아남은 이들이 억울한 죽음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그 뜻을 받들어 현재를 살아갈 때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다. 해마다 돌아오는 사월, 그리고 산에서 피어나는 꽃에서 죽은 이들의 혼을 발견하고 그날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시들이 이에 해당한다.

꽃샘 한파란다

맹물에 된장 풀어놓은 산비알을
흔들어 깨우며
떼지어 출렁이는 유채꽃
저 눈물어린 절정
사월의 입술이 노랗게
아주 셋노랗게 무너져간 들녘에서
나도 너처럼 울고 싶다
별살이 따가운 곳을 알고
가녀린 허리로도 결코
시들어가는 때를 허락하지 않는
혹독함으로
너 눈부신 낙화여
무수히 쓰러져간 영령들의 아우성이여

- 김순남, 「시들지 않는 꽃」 부분

‘떼지어 출렁이는 유채꽃’은 무고하게 죽어간 이들을 연상시키는 데, 그 모양은 ‘가녀린 허리로도 결코 시들어가는 때를 허락하지 않는’ 강인함이다. 외지인들에게는 신혼여행 때 찍는 기념 사진의 배경 정도로 인식되었지만, 시인이 유채꽃밭에서 발견하는 것은 죽어간 이들의 넋 같은 것이다. 유채꽃을 단지 아름다운 배경으로만 알고 있는 외지인들은 제주도에 얽힌 역사적인 아픔과 그 상징성을 읽어내지 못한다. 그들에게 제주도는 단지 신혼여행지 혹은 관광지, 휴식처 등일 뿐이다. 이 시는 그러한 외지인들의 시각에 대한 비판을 직접 드러내고 있다. 이들에게 해원은 일단 4·3을 외부적으로 널리 알리는 데서 시작한다.

이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상처와 증오를 감싸안은 포용의 방식으로 해원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다.

4·3의 어느 날

죄 없는 아버지가 총살당한 산
 형님마저 잡혀가서 소식 없는 산
 마을 사람들이 끌려가서 주검되던 산
 그 산을 보듬어 안고
 어머니는 소중하게 키우며 삽니다.
 풀 하나, 바람 하나 놓치지 않고
 사랑하며 삽니다.

- 김용해, 「한라산」 부분

난리통 속에 남자들은 죽거나 어디론지 모르게 끌려가고 남겨진 것은 여자와 아이들 뿐이다. 그 모든 아픔들을 끌어안은 '어머니'는, 자신 안에 모든 아픔과 증오들을 묻음으로써 죽은 넋을 위로한다. 그들의 인내하는 삶이 解冤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가와 무관하게, 어머니들은 한숨과 눈물 속에서도 곳곳이 남아 죽은 자들을 기리고 남은 자들을 다독거리는 강인한 존재이다. 이 '어머니'의 존재는 굳이 4·3을 소재로 한 시들만이 아니라, 전쟁이나 난리 후의 삶을 묘사할 때 자주 등장하는 일반적인 상징이다. 이러한 일반적인 상징이 상처를 치유하는 방안이 되기 위해서는, 그 상징에 좀더 특수하고 구체적인 사실들이 첨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즉 4·3을 겪고 그 상처를 간직한 채 살아가는 어머니상이 일반적인 모성의 특징으로 제시될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구체적인 현실성을 가지고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주도의 전형적인 어머니상에서 그 가능성을 타진해보는 것 또한 한 방법일 수 있다.

3) 화해와 공존의 새로운 미래

위의 두 유형의 시들은 대부분 과거에 있었던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그 후손들의 현재의 삶과 미래에 대한 전망이 빠져 있다. 이와는 달리 다음에 소개되는 시들은 현재적인 삶의 모습과 앞으로의 삶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보다 발전적인 입장에 있다. 이

시들은 4·3 당시의 기억들이 아니라 그 후손들의 왜곡된 삶에 집중하고 있다. 조상 때 있었던 오해와 갈등으로 서로 반목한 채 지내온 사람들의 현재의 삶과 그것을 극복하려는 의지(김용해, 「억새풀」; 김광렬, 「始原」, 「대숲에서」), 그리고 화해를 통해 희망적인 앞날을 조심스럽게 점쳐보는 것이다.(김석교, 「입춘 서시」) 특히 김광렬의 시는 과거의 상처를 딛고 서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면에서 주목을 요한다.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눈물 몇 조각도 없다
깜깜함이 어둠 속에 솟구치는 불길보다도
더 캄캄하게 타오를 뿐이다
그래도 우리는 일어나 어디론가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가
타들어가는 시체와 곡식과 집들과
오랜 세월 폭 길들여진 찢든한 사랑과
그러나 삶은 어디론가 가라 한다
가서 팽나무처럼 단단한 뿌리 내리고 살라 한다
- 김광렬, 「始原」 부분

꽃꽂한 정신 하나 붙들어매기 위해
날이 맵찰수록 대나무들은 더욱 푸르다

한때는 지조있는 선비들이
대나무의 뜻을 본받으며 스러져갔다

나라가 어려울 때 의병들도
죽창 들고 나라를 구하는 데 앞장섰다

4·3때도 사람들은 죽창을 들었다

그 중에는 억울해서 죽창을 든 사람도 있었다 한다

그 모든 원통함들이 대숲에는 살아 있다
그들의 뼈아픈 목소리가 댓잎 끝에 서적인다

아, 이제 더 이상 슬픔은 없어야 한다
알고 보면 다 인정 나누며 살던 이웃인 것을

서로 어우러져 살기 위해
대숲에는 대나무들이 뿔뿔이 모여 살고

우리는 여기 고단한 몸 비비며
두 눈 부릅뜨고 곳곳하게 살아가려 애쓴다

- 김광렬, 「대숲에서」 전문

「시원」은 4·3으로 황폐해진 삶과 정신적인 공황 상태를 보여준다. 눈물도 말라버린 상황에서 암흑은 계속되고 사람들의 삶도 계속된다. 그러나 이 시는 암흑과도 같은 절망 속에서도 다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삶의 관성을 진솔하게 드러낸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떻게든 목숨을 부지하게 마련이고, 삶은 계속되는 것이다. 그것을 시인은 단단하게 더욱 끈질기게 살아가라는 삶의 교훈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대숲에서」이다.

이 시에서 '대나무'는 지조있는 선비의 상징이다가, 나라를 구하는 수단이다가, 억울한 사람들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들었던 무기로 변화한다. 4·3 당시 대나무는 죽창으로 만들어져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남을 위협하고 찌르는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4·3을 중심에 놓고 볼 때 대나무는 지조와 절개의 상징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방어와 반목을 상징한다. 그러므로 대숲에서는 뼈아픈 목소리들이 서적이는 것

이다. 그러나 대나무가 모여 대숲을 이루는 곳에서는 대나무들이 뻣뻣하게 들어서 서로 몸을 부비며 소리가 난다. 속성상 대나무들은 서로 모여있을 때만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다. 한때 반목하고 질시하는 시절을 겪긴 했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서로 어울려 인정을 나누며 살 수밖에 없다. 어쩔 수 없이 지치고 상처받은 사람들끼리 몸을 비비며 살아가라는 것, 그것이 대숲에서 시인이 얻은 교훈이다. 이 때 대나무는 죽창을 만드는 재료가 아니라 함께 어우러져 사는 것들의 상징이 된다. 지조와 절개라는 관습적인 상징인 대나무는 반목과 갈등의 상징을 거쳐 화해와 共生の 상징으로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고 있다. 이 시는 이같은 과정을 통해 앞으로의 전망을 성공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3. 4. 3을 소재로 한 시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전망

서론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4·3을 소재로 한 시들은 1990년대에 집중적으로 쓰여진 것으로 되어 있다. 그것은 4·3이 발발한 지 50년의 세월이 흘렀다는 시간적인 원인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6월 항쟁 이후 사회적인 탄압이 완화되면서 생겨난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작품의 양이 많아지고 4·3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진 시인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분명히 고무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여기서 나타나는 몇 가지 문제점들 또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된다.

첫째, 내용상의 동어반복과 그에 따른 시의 획일화를 들 수 있다. 4·3을 소재로 한 시들은 당시의 상황을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면 4·3의 현재적인 의의나 미래의 전망에 중점을 두는가에 따라 조금씩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넓은 의미로 볼 때, 이 시들은 대부분 엇비슷한 내용과 목소리를 담고 있다. 특히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고발과 증언의 시들은, 사건이 발발한 장소와 시각, 피해자는 다르지만 무고한 사람들이 어떻게 죽어갔는가를 보여

주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 시들은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하고는 있지만, 수난상을 그리는 데 치중하다 보니 상황에 대한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역사적인 시각이 뒷받침되지 않은 증언이나 고발은, 4·3을 감정적인 측면에서만 접근함으로써 사건의 진실에 다가가지 못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4·3의 현재의 의미나 미래의 전망을 보여주는 시들이 좀더 많이 쓰여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상처와 슬픔을 어떻게 극복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승화시킬 것인가가 중요한 관건이다. 현재의 삶과 연결되지 않는 역사는 단지 옛날 이야기일 뿐이기 때문이다.

둘째, 4·3을 바라보는 시각의 평면성을 지적할 수 있다. 대부분의 시들은 제주도민의 입장에서 4·3을 그리고 있다. 그러므로 억울함을 호소하고 解冤을 기다리는 내용이 많고, 피해를 당한 도민의 입장을 반복하여 설명하고 있다. 시를 쓰는 주체가 제주도민일 경우, 이러한 특징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역사적인 사실을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눈을 가리는 장애 요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그것은 외지인에 대한 반감과 피해의식으로 귀결되기도 한다. 4·3을 소재로 한 시가 좀더 다양하고 풍부한 넓이를 가지기 위해서는, 사실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을 갖추어야 한다. 피해의식에서 벗어나 사실을 담담하게 바라보려는 노력 또한 요구된다.

셋째, 시의 양만이 아니라 질적인 수준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4·3을 소재로 하는 시들은 양과 질의 양면에서 아직은 미흡한 상태이다. 90년대 들어서 4·3을 다룬 시집들이 한꺼번에 출간되기는 했지만, 일회적인 일로 끝나버림으로써 작품을 구하는 것 자체가 힘이 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발표된 시들도 많지 않지만, 그나마 출판된 시들조차도 일반인들에게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절대적인 분량의 적음을 뜻하는 것이다. 게다가 발표된 시들 또한 모두 성공적인 것은 아니다. 개중에는 시라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작품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단순한 감정 토로나 막연한 추모, 절

제되지 못한 읍소나 탄원 등은 질의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의도한 내용을 전달하는데도 방해가 된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앞에서 이야기한 김순남의 「시들지 않는 꽃」이나 김광렬의 「대숲에서」 등은, 내용 뿐만이 아니라 시적인 형상화에도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유채꽃'이나 '대숲'은 역사적인 함의를 담고 있으면서 동시에 독립된 시적인 소재로서 기능하고 있다. 덕분에 이 시들은 잔잔한 울림을 가지고 있다.

4·3을 소재로 한 시들이 단지 제주도민들만의 한풀이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이상과 같은 문제점들이 먼저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4·3은 특수한 한 지역에서 폭도들이 일으킨 난리가 아니라 민족의 역사와 맥을 같이하는 현대사의 한 장으로 기록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및 자료

* 시집 자료

- 김경홍, 『인동꽃 반지』, 대한, 1999.
 김광렬, 『가을의 시』, 창작과비평사, 1991.
 김석교, 『넋 달래려다 그대는 넋 놓고』, 증명, 1999.
 김수열, 『어디에 선들 어떠랴』, 파피루스, 1997.
 김순남, 『돌아오지 않는 외출』, 답게, 1997.
 김용해, 『아버지의 유언』, 학예원, 1998.
 양영길, 『바람의 땅에 서서』, 영하, 1999.
 이산하, 『한라산』, 1996.
 임현영·강형철 편, 『4·3도 유채꽃』, 전예원, 1988.
 제주작가회의 편, 『바람처럼 까마귀처럼』, 실천문학사, 1998.

* 참고문헌

- 김동윤, 「4·3문학, 어디까지 왔나」, 『제주작가』 4호, 2000.

- 김영화, 『변방인의 세계- 제주문학론』,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0. (개정 증보판)
- 아라리 연구원 편, 『제주민중항쟁 I』, 소나무, 1988.
- 양영길, 「4.3문학의 흐름과 과제」, 『제주작가』 2호, 1999.
- 역사문제연구소 외 편, 『제주 4·3 연구』, 역사비평사, 1999.
- 현길언, 「제주문학에서 세계문학으로-4·3 문학의 방향」, 『제주작가』 4호, 2000.
- 홍정선, 「제주도 4·3 사건을 보는 작가의 세 가지 시각」, 『월간중앙』, 1988, 10.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Poetry Using 4·3 Uprising as Materials

Mun Hyewon

Abstracts

It was from 1990s that poetry for 4·3 uprising begun to be written in earnest. Thanks to the efforts of proving the truth for nearly 50 years and changed social atmosphere, it was possible.

The poetry for 4·3 uprising can be largely divided into 3 categories: The first type is the poetry for accusing the horrible scenes of the accident, depicting the sufferings. And the second type is for calming down and pacifying the souls of the victims. The third type is for carrying the will to build up new future from those basis. The first type focuses on accusing and disclosing the sorrowful realities that happened on April 3rd in Jeju. Those poetry of the type accuse the characteristic of violence of 4·3 uprising, by way of showing how was absurd the massacre inflicted to the innocent people of Jeju. Second type aims to placate the soul of the dead and satisfy their grudges. Accordingly, it has the memorial form of praying the peacefulness of the souls in the next world. Different from the previous ones focusing majorly on the past, the third type is more developmental in respect that it presents the current life of descendants and the direction of future life.

In the meanwhile, we can find some problems. Firstly, we can see the repetition of content and standardization to the point. Most poetry depicting the pitiful damage of 4·3 uprising carry the similar contents.

Adding to that, there is risk of covering up the realities, as they are only putting their emphasis on the sufferings, but they do not provide with historical and objective analysis. Secondly, we can point out the superficial observation of those poetry. A large part of them see 4·3 uprising only from the point of Jeju people. Such attitude sometimes cause antipathy and sense of victim to the outside people. Finally, poetry dealing with 4.3 uprising lack not only quantity and but also quality. To be literarily meaningful, those poetry should cope with the above problems among other things.